



# 러브미 명대사

- 2026. 01. 19. 캠강맘

행복은 말이야,

생각보다 그렇게 가까이 있지가 않아요.

아주 멀리 있어, 응?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지.

외로움은 치부다.

치부는 그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된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내 치부를 들여다볼 때면 방어 기제가 발동한다.

누군가는 서둘러 변명을 하고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도망친다.

외로움은 감추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 거라고 또 누군가는 말하지만 그건 죽음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다음이 있을 줄 알았다.

커다란 꽃바구니도 선뜻 선물할 수 있는 다음이, 공원 잔디밭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을 다음이, 엄마 잘 자 사소한 인사를 전할 수 있는 다음이.

그런 평범한 다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 알았다.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때의 나에게.

붙잡고 싶었다. 멈추라고.

지금 이렇게 도망치면 계속 도망치게 될 거라고.

계속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계속 혼자 외로울 거라고.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싸울 수도 없고 화해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고.

혼자 할 수 있는 건 외로운 거 밖에 없네.

인생은

어떤 빛나는 축복도

어떤 지독한 슬픔도

우리 곁에 오래 머물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지독한 슬픔보다

심장을 뛰게 만드는

내 분노가 더 중요하고

지독한 슬픔보다

예기치 않은 작은 내 설렘이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은

어떤 빛나는 축복도

어떤 지독한 슬픔도

우리 곁에 오래 머물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 때의 나에게...

붙잡고 싶었다. 멈추라고  
지금 이렇게 도망치면 계속 도망치게 될 거라고.  
계속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혼자 외로울 거라고...

### 지독한 슬픔보다

심장을 뛰게 만드는 내 분노가 더 중요하고  
지독한 슬픔보다  
예기치 않은 작은 내 설렘이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은  
어떤 빛나는 축복도 어떤 지독한 슬픔도  
우리 곁에 오래 머물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 생각해 보면 우리는 봄을 오해하고 있다.

햇살은 따뜻하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참 좋은 계절. 안심하라는 듯 상냥한 척하지만 봄은 원래 그렇게 상냥한 존재가 아니다.

이제 따뜻해질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꽃샘추위가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불안정한 대기가 만든 지독한 일교차로 낮과 밤의 얼굴이 달라 우리를 당황케 하기도 한다.

색깔 없이 흔들리는 아지랑이로 우리를 어지럽히는 그런 봄이 올해도 어김없이 무사하지 않게 지나가고 있다.

### "우산은 늘 옆에 있다가도 필요할 땐 항상 없는 거 같아요."

"필요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내가 항상 준경 씨 옆에 있을게요. 준경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알고 있었던 일도 버거운데 우리 사이에 예상도 못 할 일,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불행이 생기면? 그땐 분명 도망치고 싶고 놓고 싶을 텐데.

### 소박한 행복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가득 채우기도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이런 시간들만으로도 충분히 충만하기에 더 큰 행복은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는데 인생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을 우리 앞에 데려다 놓는다

지금 이 순간 깨달았다.

내가 저 사람을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있다는걸.  
이것만큼 확실한 건 없다.  
이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할 이유로

바보였지.

그리운 건 감정인데  
그게 괴로움이 되는 순간  
통증으로 오더라고  
되게 신경 쓰이고 짜증 났다가  
나중엔 좀 아팠지.

인생은 축제라잖아요.

우리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힘들고 괴로운건 망각하려고 노력하고, 즐겁고 좋은 건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새벽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숨길 수 없는 시간.

낮에는 즐거운 척, 외롭지 않은 척,

즐겁거나 외롭거나

그 중간 즈음 어딘가에 숨을 수 있는데

새벽엔 그게 안돼요.

나는 그 중간 즈음 어딘가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시간이라서...

여러분은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아시나요?

고독은

자발적으로 혼자가 된

즐거움을 말하고

외로움은

타의적으로 혼자가 된

괴로움을 말한다네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독한가요 아니면

외로운가요?